

ISSUE ANALYSIS
(2026.1.16.)

2026.1.13.
한·일 정상회담 평가

www.kpiri.co.kr

ISSUE ANALYSIS

한·일 정상회담(2026.1.13.) 평가

정상회담의 의의

한·일 관계 회복과 실용적 서틀외교의 복원

정상회담의 성과

- 양국 정상이 한·일 관계를 회복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
 - 경제안보, 공급망, 인공지능, 초국가적 범죄 대응 등 실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
 -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와 관련해 일본 조세이 해저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 분석 협력을 약속
-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공조 필요성에 공감
- 한·미·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 재확인

일본 입장

- 한·일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해로 만들어 중국과의 갈등 국면 속에서 한국과 안정적 관계 구축 의지를 표명
 - 양국 부처 간 실무협의를 통해 경제와 경제안보 협력 심화를 강조
 -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으나 구체적 합의 내용은 미공개
- 한·미·일 및 한·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을 자신이 주도하는 전략적 영향권 내로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보임
- 이 대통령의 완곡한 역사문제 언급에 다카이치 총리는 어색한 미소를 보였음
-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에 소재한 호류지를 양국 협력의 상징적 장소로 만들어 국내 정치적으로 안정적 지지를 확보하고 외교적으로도 성과를 얻는 이중 효과를 노렸음

한국 입장

- 신뢰 관계 강화와 경제적 실익 추구에 중점을 둠
 - 불확실한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교류와 협력의 강화 중요성을 강조
 -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한·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등을 포함한 역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
- 과거사 문제에 대해 완곡한 접근
 - 무역, 안보, 공급망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깊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길 바란다고 완곡하게 역사문제를 언급함
 - 조세이 탄광 조선인 희생자 유골 DNA 감식 문제를 '인도적 협력'이라며 역사 문제를 대립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적 노력을 보임

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

- 한·일 양국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서틀외교를 최대한 활용
 - 한·일 관계 개선으로 양국 정부가 모두 자국 내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함
 -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진행된 두 정상 의 드림 합주는 지정학적 및 경제적 불확실성의 대외 환경하에서 양국이 가진 조화와 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퍼포먼스로 해석할 수 있음
- 동일한 지정학적 정세 하에서 한국은 자율적 균형, 일본은 진영 협력으로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임
 - 한국은 미국, 중국, 일본 등 주변국과의 정상외교에서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안전한 입장을 유지했음
 -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미·일 및 한·미·일 협력의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한국을 자신이 주도하는 역내 협력의 틀 안으로 유도하려는 입장을 보임
 - 양국 정상이 모두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공통된 의지를 보임
 - 미·중 경쟁, 북핵 고도화, 중국의 역내 공세적 행보, 돈로독트린 등으로 인한 대외 압력과 위기의식이 한·일 양국을 협력 강화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
 - 한·일 양국은 역내 질서 형성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를 따르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미국을 한·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미·중 경쟁과 중·일 갈등의 국면에서 한국이 취한 균형외교 전략이 가져올 결과를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움
 - 자율적 균형 외교가 미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
- 양국 관계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함
 - 한·일 국교정상화가 60년을 넘기는 동안 양국 관계는 냉각과 개선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왔음. 때문에 아직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인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는 없음
 -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이 실리에 기반한 외교가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
 -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논의는 깊이 다뤄지지 않았으며, 강제징용 소송, 위안부, 사도광산 추도행사 등에 관련된 현안은 양국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음
 - 역사문제 중에서도 민감하지 않은 조세이 탄광 사안,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문제를 선택해 우선 합의한 것은 양국 관계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
 - 아사히 신문을 제외한 모든 일본 주요 언론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
- 한국에 대한 위기요소
 - 한국의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 가입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
 -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공조 합의가 북한의 반발을 강화해 대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
 -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과 북한이 극적으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상황과 그로 인한 한국의 외교적 배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